

문화예술 인적·물적 자원 활용 '콘텐츠 협력' 맞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담장 김상욱(왼쪽)과 (재)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직 무대행 황인재)은 지난 10일 ACC 회의실에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ACC

亞문화전당·광주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문예진흥 목표 생태계 발전 시너지 기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담장 김상욱(왼쪽)과 (재)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직 무대행 황인재)은 지난 10일 ACC 회의실에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CC는 올해 '지역 문화예술 유관기관 협력'을 주요 과제로 삼고 지역 문화예술 기관과 연계·협력 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

그 첫 번째 협력 기관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기관인 광주문화재단

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 개발에 나선다.

협약에 앞서 두 기관은 올해 초 각 사업 계획을 미리 공유하며, 공동 협력 사업 추진, 인적 자원 및 콘텐츠 사업 교류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ACC는 지역 예비 예술가 전시, 책 읽는 ACC, 시각예술 레지던시, ACC 시즌 예술인, '시간을 질하는 사람' 공연 등 사업 협력을, 광주문화재단

은 아트 광주와 디어 마이 광주,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문화 다양성의 날 등 사업 교류를 제안하는 등 전시, 공연, 교육, 축제 분야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두 기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성공적 조성에 기여'라는 동일한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네트워크와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상욱 전담장은 "이번 ACC와 광주문화재단의 업무협약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자체 출연기관이 힘을 모은 모범 사례로, 지역 문화에

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ACC가 광주·전남지역 문화예술 기관들의 교류·협력 '허브'기관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동환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대표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을 통해 광주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적십자 광주전남혈액원 '레드캠페이너 12기' 발대

5팀·44명 고교생 구성...헌혈 캠페인·SNS 콘텐츠 제작 집중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최근 광주고려고등학교에서 2026년도 레드캠페이너 1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김현호 고려고 교장, 김정훈·윤세진 지도교사, 레드캠페이너 학생 14명이 참석했으며 레드캠페이너 임명장 수여 및 선서, 프로그램 안내, 헌혈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2026년도 레드캠페이너 12기는 광주고려고, 전대사대부고, 비아고, 광영고 4개교 총 5팀, 44명의 학생들로 구성됐다. 레드캠페이너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고등학생,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헌혈 홍보 캠페인과 SNS 콘텐츠 제작에 힘을 쏟는다.

또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 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최근 광주고려고등학교에서 2026년도 레드캠페이너 1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으로서 바쁜 일정에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레드캠페이너 활동에 지원해 자랑스럽다"며 "학생들이 헌혈 참여를 비롯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성 광주전남혈액원장은 "광주전남

레드캠페이너 학생들과 함께 만 16세를 맞는 고등학생들이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갖고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헌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장숙남 신임 광주지방보훈청장 취임

장숙남(56·사진) 제44대 광주지방보훈청장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장 청장은 광주보훈청 역대 첫 여성 청장으로, 1990년 공직에 입문한 뒤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 국립묘지정책과장, 제대군인지원과장, 기념사업과장, 인천보훈지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장 청장은 이날 독립운동기념탑과 현충탑에 이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순



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참배했다. 장 청장은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하고,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기억하는 보훈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영진 기자 looks@



고흥 풍양농협이 추진한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이 개최됐다. 사진은 주요 참석내빈 테이프커팅 모습. 사진제공=고흥군청

고흥 풍양농협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

인력난 해소·근로환경 개선

고흥 풍양농협이 추진한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이 개최됐다.

이번에 준공된 기숙사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반 시설로, 사업비 6억 6000만원(도비 1억2600만원, 군비 2억 9400만원, 자부담 2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기숙사는 지상 2층, 연면적 312㎡ 규모로 건립됐으며, 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4인실 6개와 공용 주방과 세탁실, 화

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지역 내 숙소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기숙사 건립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게 됐다.

이는 근로자들의 지역 안착을 돕고 농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풍양농협은 전국 지역농협 최초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 인건비 상승을 완화하는 등 인력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해 왔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동신대 취업 홍보는 우리가 책임진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 홍보대사 발대식

동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안민주)는 최근 동산행정관 세미나 6실에서 취업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선발된 8명의 홍보대사들은 1년 동안 정부 청년고용정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교내의 취·창업 정보를 활발하게 전달하는 '취업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며 '취업에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의 취업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일조할 예정이다.



올해 동신대학교 취업 프로그램 홍보를 책임질 '취업홍보대사'가 선발됐다. 사진제공=동신대학교

동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AI시대를 맞아 MZ세대들이 쉽고 친근하게 취업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트렌드에 민감

하고 AI활용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 발했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도 핵심 과제로 취업홍보대사들은 취업 관련 스펙과 카

드뉴스를 제작하는 온라인 활동 뿐만 아니라 취업박람회, 교내의 취업행사, 지역내 취·창업프로그램 등 오프라인 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 향후 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4명의 학생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된다.

발대식 이후에는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AI활용 SNS마케팅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안민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필요한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정확하고 친숙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업홍보대사들의 창의적인 콘텐츠가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취업 가이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노동청 제조업체 불시점검...중대재해 '꼼짝마'

사망사고 22.2% 중 '끼임' 최다 외국인노동자 안전관리 등 주문

노동당국이 광주지역 제조업 산업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하남산단 내 가전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펼쳤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3년 기계차 충돌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최근 5년간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한 고위험 사업장이다.

이번 점검은 통계 기반으로 기획됐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사고사망자 872명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22.2% (162명)로 나타났다. 이 중 '끼임' (21.2%)과 '부딪힘' (15.4%) 사고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노동청은 기계차 운행 구간과 프레스 설비 등 고위험 공정을 중심으로 공

장동과 물류 하역장을 집중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단순 점검을 넘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기계차 사고 예방을 위해 AI 기반 사람 감지 센서와 후방카메라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권고하고, 기계 정비 시 전원 차단과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LOTO(Lock-Out, Tag-Out)'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다국어 안전수칙 게시와 시각자료 중심 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으며, 현장에서는 5개 국어로 제작된 안전수칙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예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응했다. 사업장 측도 지문인식형 장비 관리, 다국어 안전관리 규정 도입 등 자체 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하남산단 내 가전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펼쳤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경험한 사업장은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며 "단속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병행해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산단과 같은 고위험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점검을 상시화해 '안전이 곧 경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광주환경공단, 모니터링단 위촉...SNS 소통 강화

SNS 콘텐츠에 대한 시민 의견 반영 공감형 홍보 추진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병수)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감도 높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을 위촉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광주환경공단은 지난 10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시민모니터링단으로 선발된 5명

에게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촉장 수여와 함께 향후 활동 방향 및 역할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이번 시민모니터링단은 공단 SNS 콘텐츠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콘텐츠의 이해도·흥미도·전달력 등을 점검하여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방향을 마



광주환경공단은 최근 공단 대회의실에서 시민모니터링단으로 선발된 5명에게 위촉식을 가졌다.

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시민의 시각에서 콘텐츠를 직접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공단 홍보의 실용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촉식 이후에는 모니터링단 활동 안내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콘텐츠의 이해도·흥미도·전달력 등을 점검하여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방향을 마

양동민 기자 yang00@